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익산시, 기본구상 용역 예산 확보…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세계 식품 산업 거점 ‘도약’

익산시가 ‘케이(K)-푸드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국립식품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에서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요리하거나 시식하는 콘텐츠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됐다.

한국 라면, 조미김, 김밥, 아이스크림 등 한국의 식품 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한국에서 수출된 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의 인기는 한국 관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인 발걸음을 한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K-푸드 관광 자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나온다.

익산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도시로서 세계 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향해 변모하고 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전 주기적인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을 건립해 세계 식품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시는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이 ‘식품

산업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물관은 인류의 식문화부터, 고도화된 식품산업의 미래와 기술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는 박물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식품 역사와 푸드테크·디지털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길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부처의 협의를 원활히 이끌어 내고,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립식품박물관이 익산에 건립되면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익산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행복위, 2025 주요업무보고 청취

기획행정국 7개과 소관 대상… 기획예산과·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회계과·세무과·시민납세과·열린민원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7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먼저, 설경민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과가 국 주무과로 된 만큼 종전 주무과였던 행정지원과의 지위를 잘 파악해, 조직운영에 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I(도시 브랜드) 및 BI(사업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단체장 교체 시기와 맞물릴 경우 활용도가 낮아지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 선출을 고려하여 CI·BI 개발 용역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란 의원은 국책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공공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이 은퇴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구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 군산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주민 갈등과 재정 문제가 표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창호 의원은 인사관리와 관련, 기획예산과의 조직관리 기능과 행정지원과의 인사관리 기능이 명확히 구



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시스템을 벗어나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이 성과평가(BSC)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보협력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인근 유사 규모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연화 의원은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 계약)를 통한 물품 계약 시, 구입 품목의 단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PC나 장비 구입 시 시중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올해 주요업무보고 청취

토지정보과·건설과·주택행정과·건축경관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4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해춘 위원장은 국가지점번호 판 설치 관련 섬 지역에 데크길과 산책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말도 인도교 개통을 앞둔 만큼 방문객 안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가지점번호와 추가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건설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윤신애 의원은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 사업 관련 근대역사거리 및 말랭이마을은 백열전등이 어울리는 점을 예로 들면서, 사업 추진 시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현장 여건

고려하여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특히 이번 경안동 인도 보수 공사 시, 인도 구배가 상가 방향임을 감안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주택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김경구 의원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증가에 따라 기존 아파트 공동화 와 재산가액 하락 등을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산시 인구에 적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대상 업무보고에서 김영자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하여 문화, 역사 등 군산만의 특색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용률·취업자 지속적인 상승세

고용률 59.4%·전년 대비 취업자 1천400명 증가… 산단 일자리 활성화로 고용지표 개선 전망

군산시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산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24년 군산시 고용률이 59.4%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자 수 역시 1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 4백 명(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시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1.5%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여 5년 연속 지속

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천 4백 명으로 전년 동기와 같으나 경제활동인구는 13만 9천 4백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백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15~64세의 고용률은 64.8%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여 도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통근취업자 변화 추이를 보면 군산시 거주지 외 타 지역 통근취업자 수

는 전년 동기 대비 3천 5백 명이 감소한 7천 9백 명이며, 거주지 내 통근취업자 수는 129만 4천 명으로 4천 8백 명 늘어났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군산시는 올해도 청년취업, 시민밀착형 일자리 창출, 새만금 고용 특구 지정에 따른 취업 지원, 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주민과의 대화’ 출발

함열읍부터 29개 읍·면·동 방문… 15일간 민생 현장 의견 수렴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24일 함열읍과 용안면을 시작으로 15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년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역점 추진하는 시정을 주민 앞에서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건의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시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방침이다.

이날 첫 방문지인 함열읍과 용안면에서는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희망이 있는 익산’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용안면 송산경로당을 직접 찾아 지붕 누수 등 노후한 시설을 둘러보고 보수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밖에도 △우수관 확장 △마을 진입도로로 확장 △농배수로 정비 등 꼭 필요한 주민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논



의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익산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문턱을 낮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강소특구사업 통합
기업설명회… 27일 개최

군산시가 오는 27일 베스트웨스턴 군산 호텔에서 기업 대상 ‘2025년 군산 강소특구사업 통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을 중심으로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주요 사업을 함께 설명하는 자리로, 관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올해 기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이 다.

기존 기업 대상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산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관련 지원 절차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청년다다름사업’ 추진

내달 5일까지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와 함께 ‘청년다다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책 시각지대에 놓이거나 진로 또는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4세 취약 청년이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최근 2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들의 △일상회복 △자기성장 △사회안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월 최대 30만 원씩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식비카드와 연 1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월 5일까지 청년재단 누리집(ky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극장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